

# 해남 간척지 염농도 상승 '비상'

### 고온 지속에 평균 0.13%~0.08% 초과하면 수확량 줄어들어 군, 20일까지 공동방제...물 흘러대기 등 염농도 낮추기 당부

해남군이 최근 간척지 관개용수 염농도 상승으로 염해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물 흘러대기와 병해충 방제 등 관리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간척지 양수장 5개소를 대상으로 염농도를 측정된 결과, 평균 염농도 0.13%, 특히 양수장 한곳은 0.18%를 기록해 전년 대비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현재 벼 생육단계는 어린 이삭이 생기거나 일찍 심은 논 이삭이 팬 상태로 관개용수의 염농도가 0.08%를 초과하면 수수당 벼알 수 감소, 등숙불량 등 수확량이 줄어든다.

군은 염농도 상승에 따른 염해피해 예방을 위해 물 흘러대기 등 수시로 물대기를 실시해 담수의 염농도를 낮출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벼 병해충 발생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중점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해남군의 경우 올해 7월 최고기온은 34도로 평년 대비 5도가 높고 강수량은 170mm로 평년 대비 56mm가 적었으나 최근 강우가 이어지면서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벼 생육환경도 악화돼 벼멸구, 흰등벌

구의 1세대 기간이 4일 가량 단축돼 후기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년도에 피해가 발생한 벼에나방도 8월 상순 유충이 발생해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는 도열병 발생이 전년보다는 적은 편이나 출수기 이후 고온 다습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병에 의한 일본계 품종, 질소 과잉급 등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8월 상순부터 멸구류, 나방류 등 발생 예찰을 실시하고, 발견 시 적용 약제를 충분히 사용해 벼대 밑부분까지 약액이 흐를 수 있도록 집중 방제해야 한다.

특히 이삭도열병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크므로 이삭이 한두개 패기 시작할 때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하고 잎도열병이 발생한 포장은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해남군에서는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농 2170ha를 포함해 2만여 ha면적에 대해 병해충 집중방제 시기인 7월 하순~8월 하순 사이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



해남군이 무인헬기를 이용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과 공동방제 지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해남군의 고품질 쌀을 차질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 '대파테라' 전남도 빵지순례 선정

"신안 특산물 대파를 넣어 만든 카스테라 맛보세요!"

전남도가 지역 농수특산물로 만든 개성만점의 빵을 모아 제작한 빵지순례에 신안의 '대파테라' <사진>가 선정됐다.

대파테라는 임자 대파를 넣어 은은한 파향이 나는 부드러운 야채 카스테라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디지털로 제격이다.

박종운 임자농협 하나로베이커리 대표는 "대파테라가 전남 빵지순례에 선정되어 기쁘다"면서 "대파테라 뿐만 아니라 신안 특산물인 임자 대파를 이용한 다양한 빵을 개발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대파테라를 개발, 특허 출원을 완료했고 관내 제빵업체에 기술이전과 공동포장



재를 보급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화빵 개발에 노력중이다"면서 "원재료가 풍부한 우리 지역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특화빵 개발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완도 청산면 '읍리 하마비' 명칭 '석조 보살 좌상'으로 변경

1984년 전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완도군 청산면 소재 '읍리 하마비(邑里 下馬碑)'가 '완도 청산도 석조 보살 좌상(莞島靑山島 石造菩薩坐像)'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고려 말~조선 전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완도 청산도 석조 보살 좌상'은 당시 석비 하단에 '하마비'라고 시멘트로 새긴 것이 그대로 문화재 명칭이 됐으나 완도군은 문화재 특성을 명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문화재 제 이름 찾기 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관련 문서 및 자료 검토, 문화재 전문 위원회와 향토사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5월 전남도에 문화재 명칭 변경 신청서를 제

출해 지난 3일 명칭 변경이 가결됐다.

하마비(下馬碑)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하라는 의미를 지닌 석비(石碑)이다.

청산면 읍리에 있는 '완도 청산도 석조 보살 좌상'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해 세워졌으며, 높이 100cm, 폭 70cm, 두께 15cm로 민간 신앙과 불교가 결합한 신앙 물로 평가받고 있다.

앞면에는 보살상이 새겨져 있는데 머리에는 보관(寶冠)이 표현되어 있으며, 세워진 시기는 고려 말 또는 조선 전기로 추정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이호근 목포과학대학교 총장과 목포 지역 특성화고 관계자들이 '지역 특성화고간 지역인재 양성 및 교류 협력을 위한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과학대학교 제공>

# 목포과학대-교육지원청·특성화고 4곳 '인재양성' 협약

목포과학대학교가 목포교육지원청, 목포시 내 특성화고등학교 4곳(목포공업고, 목포성신고, 목포여자상업고, 목포중앙고)과 '지역인재 양성 및 교류 협력을 위한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목포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협약기관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고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미래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술 인력을 양성 ▲취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관련 지역특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류에 상호 협력 ▲인재양성 과정과 양성 후 지역 정주(취업)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교

류 협력키로 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전문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청년 일자리 부족, 신·중장년 재취업 미흡 등 지역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목포과학대학교 HIVE센터에서는 지역특화분야 신규학과로 '관광문화융합과', '해양수산식품융합과'를 신설하고 기존 전기과를 '신재생에너지전기과'로 개편해 2023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프로그램과 지역현안 연계 자율과제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농업인 크리에이터 육성 영광군, 미디어 촬영·편집 교육

영광군이 농업인 크리에이터 육성 및 차세대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업인 미디어 촬영 및 편집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관내 영상 제작·편집에 관심 있는 농업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10회 과정으로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정보화교육장 및 만곡 미디어 제작소)에서 열린다.

농번기 바쁜 일정을 고려해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하며 해당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영상촬영 기획 및 실습,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한 영상편집 이론 및 실습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영광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고윤자 영광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만곡 미디어 제작소를 적극 활용하여 영광농업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가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농업기술센터는 2021년부터 관내 농산물의 홍보 효과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곡 미디어 제작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 진도군, 치매 전문 자원봉사 '단비즈' 운영

진도군 보건소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자원봉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사진>

5명의 봉사자들은 '단비즈'로 위촉됐다. 이들은 치매 환자를 위한 '소중한 나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치매환자센터 인지강화,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실 등 프로그램 진행 시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다.

'단비즈'는 치매 파트너 마스코트인 꿀벌(단비)로 공생 관계에 있는 꿀벌과 꽃처럼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는다는 의미이다.

진도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향상, 돌봄 문화확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신체활동이 줄어들면 인지 저하도 함께 진행되기 마련이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인지 활동을 돕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이수와 치매안



심센터 봉사활동 문은의 진도군치매안심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로 하면 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